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15면)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 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옥주)는 지난달 17일 송파구의회에서 송파장애인부모연대((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옥주 재정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제안한 위정희 의원을 비롯해 박순옥 부위원장, 김성호, 이희승, 박지선, 강정선 의원이 참석했다. 송파장애인부모연대 측에서는 이경미 부회장, 김경나 정책위원장, 김지현 사무국장이 참석해 발달장애인 복지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모연대 측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의 등록 발달장애인 수가 약 2400명으로 많은 수준임에도 이용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호소했



김성호 의원(왼쪽부터), 강정선 의원, 박지선 의원, 위정희 의원, 박순옥 부위원장, 최옥주 위원장, 이경미 부회장, 김경나 정책위원장, 김지현 사무국장, 이희승 의원이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 이들은 주간활동서비스 증원과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전담 인력 배치, 발달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확보 등을 요청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맘강사'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최옥주 위원장은 "최근 의회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책임보험과 장애인 복합운동시설 관련 추경 예산을 확보하며 권익 향상에 힘써왔다"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표명했다.

홍준성 기자

/roff1116@naver.com